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2021년 4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구제역방역과 과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곽상익(2539)/ 제공일 : 3월 31일(총 3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소·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!
- 2021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전국 일제 접종 추진

《 주요 내용 》

◈ 전국의 소·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2021년 상반기 일제 접종 추진

○ **(기간)** 2021년 4월 1일 ~ 5월 12일

○ **(대상)** 전국 11만 7천여 농가의 소·염소 425만 4천여 마리

○ **(접종 백신)** 구제역 2가 상시 백신(혈청형 O형+A형)

○ **(접종 방법)** 소규모농가는 시·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접종 지원,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

-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농가와 염소 농가는 100% 보조, 소 전업농가는 50% 보조(50%는 자부담)

❑ **농림축산식품부**(장관 김현수, 이하 "농식품부")는 이번 **4월부터 전국의 소·염소** 농가를 대상으로 **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**한다.

○ 일제 접종은 모든 소·염소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**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**(상반기 4월, 하반기 10월)**로 정례화**하여 시행하고 있다.

❑ **이번에 실시되는 일제 접종의 세부 계획**은 다음과 같다.

○ **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** 실시되며, 이 접종 기간에 **전국의 11만 7천여 농가**들은 사육 중인 **425만 4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**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**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.**

* 접종대상: (소) 9만 4천 농가, 374만 6천 마리 / (염소) 2만 3천 농가, 50만 8천 마리

○ 백신은 **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2가 백신**(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)을 **접종**하며,

○ **소규모농가**(소 50마리 미만, 염소 300마리 미만)에 대해서는 **시·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**(염소에만 해당)을 동원하여 **접종을 지원**하고, **전업농가**(소 50마리 이상, 염소 300마리 이상)는 **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하여 자체 접종**한다.

○ **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농가와 염소 농가**의 경우 **전액 국가에서 보조**(100% 보조)하며, **소 전업농가는 국가와 농가에서 절반씩 부담**(50% 보조, 50% 자부담)하게 된다.

※ 참고로, 돼지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, 수시로 백신접종이 행해지고 있어 일제 접종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함

❑ 한편, 농식품부는 시·도(동물위생시험소)를 통해 소·염소 농가가 일제 접종을 제대로 시행하여 **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**이다.

○ 시·도(동물위생시험소)는 검사 계획에 따라 **대상 농가별로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을 평가**하고,

○ 그 결과 **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**에는 **과태료**(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)**를 부과**하고, **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에 재검사**하는 등 **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**하여 **관리할** 계획이다.

*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: 소 80% 이상, 염소 60% 이상

❑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“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·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**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** 수 있다.”라고 하면서,

○ “농가들이 가축에게 **백신을 빠짐없이 접종**할 뿐만 아니라 **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**하는 등 **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**”을 당부하였다.